

周溝墓의 特徵과 諸問題*

崔完奎**

목 차

- | | |
|--------------|--------------|
| 1. 序. | 3) 墳丘 |
| 2. 周溝墓 遺蹟 | 4) 埋葬施設 |
| 1) 保寧 寬倉里 遺蹟 | 5) 出土遺物 |
| 2) 舒川 堂丁里 遺蹟 | 4. 周溝墓의 諸問題 |
| 3) 益山 永登洞 遺蹟 | 1) 名稱問題 |
| 3. 周溝墓의 特徵 | 2) 周溝土壙墓와 比較 |
| 1) 立地 및 分布 | 3) 周溝墓의 展開樣相 |
| 2) 平面形態 | 5. 結論 |

1. 序

최근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保寧 寬倉里, 舒川 堂丁里, 益山 永登洞 등지에서 잇달아 발견된 소위 方形周溝墓는 일본의 고유한 묘제로 인식되어온 유적이기에 최근의 조사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서부지역에 위치하는 天安 淸堂洞, 淸州 松節洞, 公州 下鳳里, 舒川 烏石里 등지에서 토광묘에 주구가 부가된 형태의 周溝土壙墓가 발견되었고, 그 후 嶺南地方의 慶州 舍羅里, 蔚州 茶雲洞, 慶山 林堂洞 등에서도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주위에 굴착된 주구시설이 발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구가 시설된 분묘의 발견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구관련 분묘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와 달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매장주체부 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봉토의 축조과정 나아가 고분 축조와 관련된 주변시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생각된다.

* 本論文은 圓光大學校 校內研究費 支援에 의하여 作成된 論文임.

** 圓光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方形周溝墓는 일본의 경우 1964년도에 大場磐雄에 의해서 東京都 八王子市宇津木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최근까지 많은 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방형주구묘의 분포는 東北地方으로부터 九州지방까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고,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弥生時代の 中後期부터 古墳時代까지 큰 시대폭을 가지고 축조되어온 묘제로서 일본의 고유한 묘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방형주구묘는 일본의 近畿地方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九州地方에서는 古墳時代 初期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이러한 주구묘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일본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한반도와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오직 이 주구묘만은 한반도에서 발견예가 최근까지 없었기 때문에, 방형주구묘가 일본 고유의 묘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발견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이러한 周溝墓들은 原三國時代의 분묘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묘제의 연구는 고대국가의 출현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고총고분 출현이전 토착묘제의 하나로서 고대국가성립과 관련한 國史上의 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고고학회에서는 1996년도 역사학대회의 고고학분과 주제로서 「周溝墓의 諸問題」을 설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淸堂洞이나 松節洞 그리고 下鳳里에서 발견된 주구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광묘에 주구가 부가된 것으로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 日本의 方形周溝墓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寬倉里, 堂丁里, 永登洞의 주구묘는 일본의 방형주구묘와 근접한 형태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묘제간에는 구조적 속성을 비롯한 여러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필자는 명칭 및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²⁾

본고에서는 주구묘의 제속성을 파악하여 많은 자료가 축적된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반도에서 발견된 주구묘의 유형과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토광에 주구가 부가된 주구토광묘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구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영산강유역의 주구고분과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구묘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茂木雅博編, 1987. 「方形周溝墓論」 『墳丘よりみた出現期古墳の研究』 (雄山閣出版) 13-26.

大場磐雄博士에 의해 方形周溝墓의 성격을 墳墓로 규정하기 이전의 研究史에 대해서도 설명되고 있는데, 특히 方形周溝墓가 墳墓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지만 모든 方形周溝墓가 埋葬의 場所 곧 墳墓로 단정하는 것에 疑問을 가지는 研究者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崔完奎, 1996. 「益山 永登洞 周溝墓」 (第30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學分科 發表要旨).

2. 周溝墓 遺蹟

1) 保寧 寬倉里 遺蹟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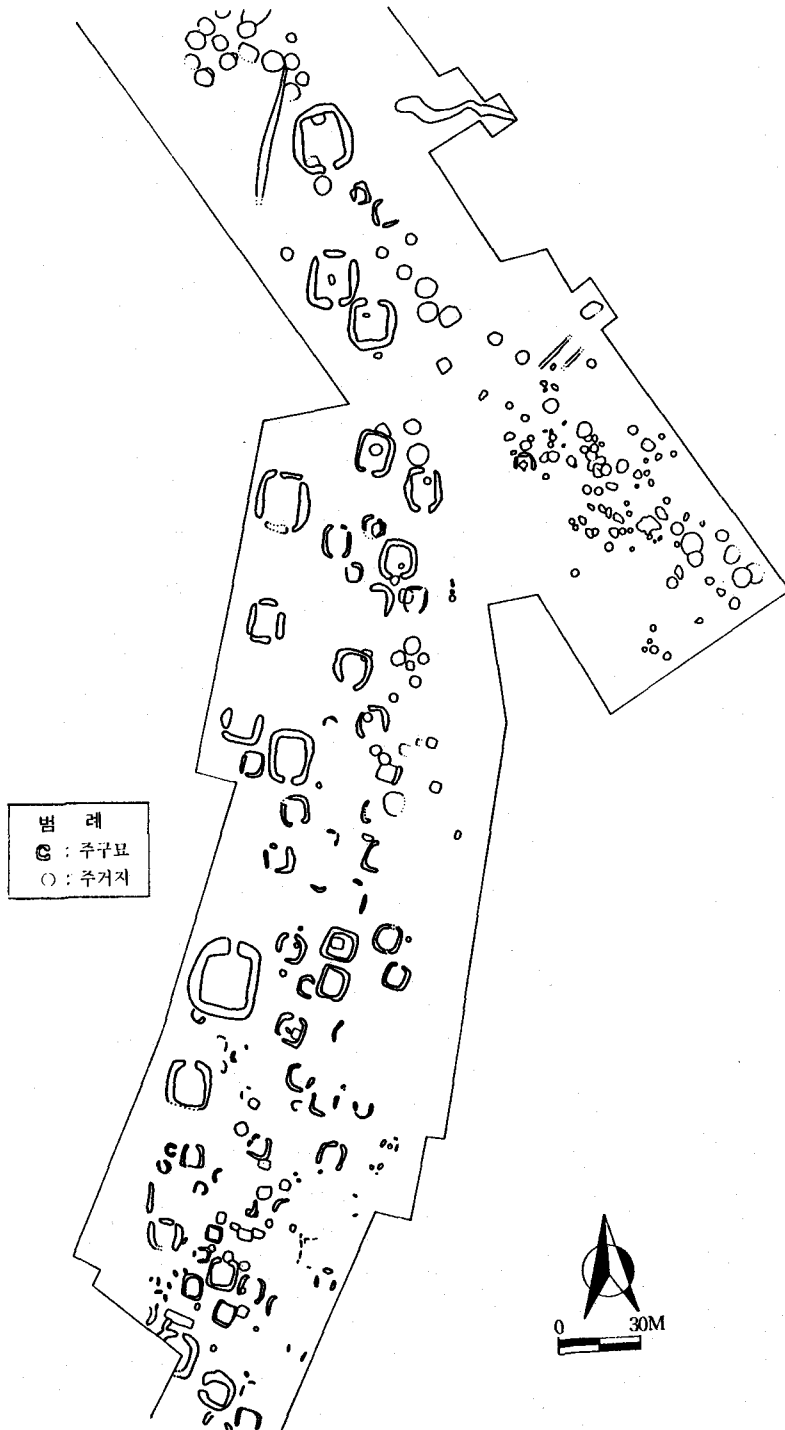
이 유적은 고려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하여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조사되었는데, 약 37,000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최대의 주거 유적과 窯址, 건물지, 그리고 농경관련유적과 함께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주구묘 유적이다.

유적의 입지는 해발 100여m의 산에서 뺀어 내린 6개의 支丘陵으로 구성되었고 전체적인 유구의 분포는 표고 약 35m의 아래쪽으로 확인되었다. 관창리 일대는 동, 남, 북쪽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에서 뺀어내린 구릉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짜기는 1km 정도 길게 이어지면서 만입된 서해와 만나고 있어 육지와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표 1〉 遺物이 發見된 寬倉里 周溝墓제원

番 號	平面形態	類型	規 模 (cm)		出 土 遺 物		特記事項
			台狀部	周溝幅	埋葬部	周溝內	
KM-401	方形	1邊切形				와질토기1 ?	
KM-402	不定形	邊切形?				와질토기 4점	
KM-403	方形 ?	隅切形?				타날문원저호편	
KM-404	方形	2隅1邊切形	2140-1820		토광묘: 와질토기1. 도자1.철촉2.	대형와질용편다수	
KM-423	方形	1邊切形	1700-2140		석관묘: 철모5.	연질적갈색토기	
KM-425	方形	隅切形				타날와질토기저부	
KM-437	方形	1隅1邊切形	2270-2250		석관묘: 점토대토기1 흑도장경호 대롱옥. 방제경		
KM-468						철부1.	
KM-480	長方形	4隅切形	660-820		토광묘		
KM-481	方形	3隅切形				와질토기1.	

3) 高麗大學校 博物館, 1996. 「保寧 寬倉里 先史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도면 1> 보령 관창리 유구 배치도

관창리 유적에서 확인된 주구묘는 총 99기로서 그 규모는 한번이 20m가 넘는 대형으로 부터 7-8m 정도의 작은 것까지 매우 다양하나 12-15m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다. 매장주체부는 成土部分에 설치되었을 것이나 거의 유실되었고 대부분 토광을 파고 목관을 안치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KM 437호와 같이 석관을 매장시설로 하고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으로 매장주체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구에서도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4세기후반대 이후의 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에 처음 주구묘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기류로는 404호, 423호에서 철촉 및 철도자, 철부가 약간 출토되었다. 특히 437호의 매장주체부는 석관묘로서 그내부에서 粘土帶土器, 黑陶長頸壺 및 수심점의 대롱옥과 倣製鏡이 발견되었다.

2) 舒川 堂丁里 遺蹟⁴⁾

이 유적은 舒川郡 鐘川面 堂丁里 일대에 위치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 토사채취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199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주관으로 긴급 발굴조사 되었다.

서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21번 국도의 동쪽으로는 낮은 산맥이 이어져 있고 유적이 입지한 곳은 21번 국도의 서쪽으로 해안쪽으로 뻗은 낮은 구릉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결과 주구묘 23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구묘는 B.M을 중심으로 조사지역 중앙부와 남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주구묘 주변으로 원형주거지가 11기, 방형주거지 1기, 장방형주거지 4기가 함께 조사되었는데, 이 주거지들이 폐기된후에 주구묘가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적의 대부분은 정상부의 삭평작업에 의하여 매장주체부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주구내에 토광흔적이 남아 있는 예는 1기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주구의 윤곽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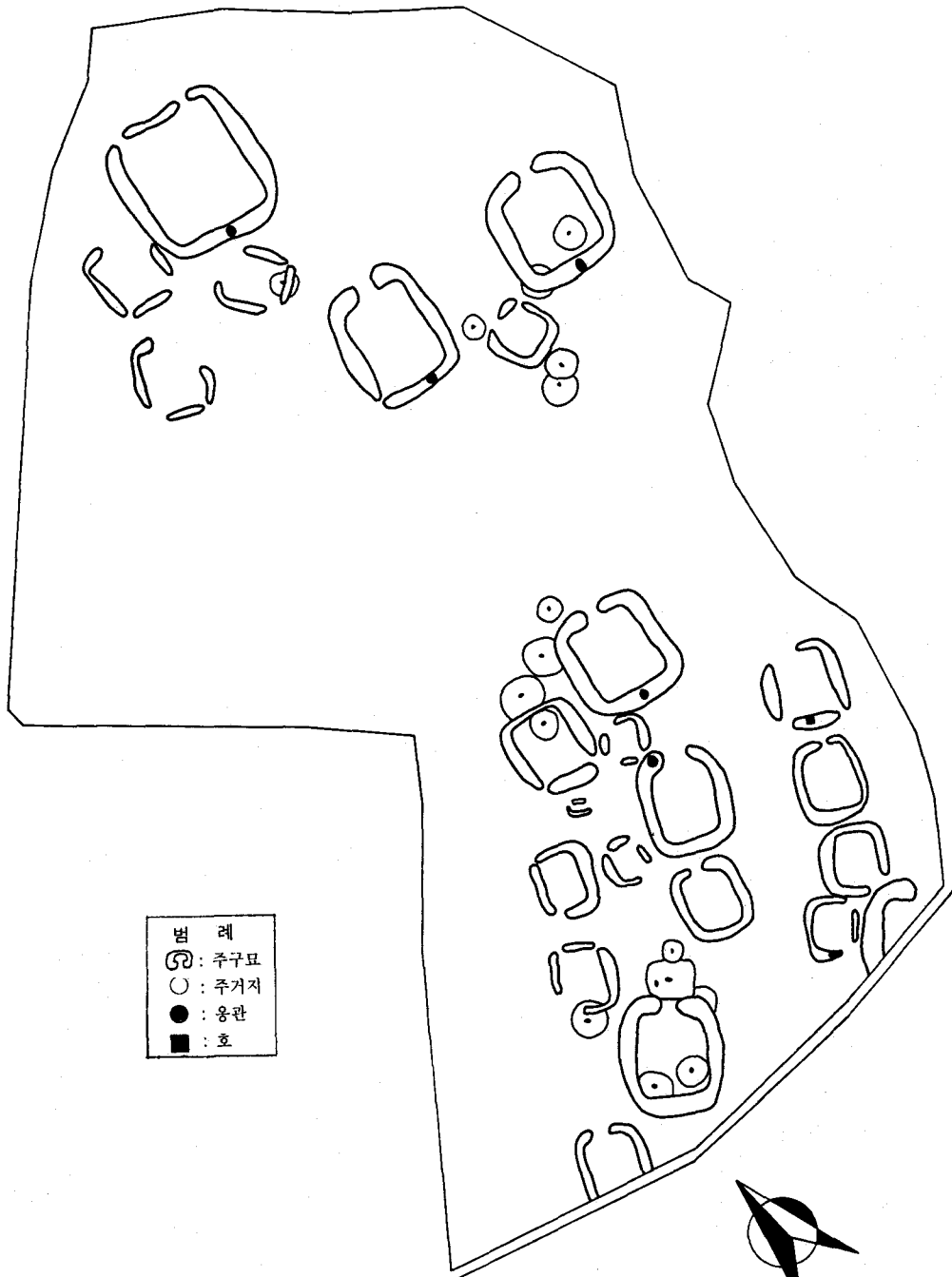
주구묘의 규모는 한번이 23.6m나 되는 대형과 한번이 3.3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도 있어 크기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대체로 방형에 가깝다.

출토유물은 주구내부에서 중대형의 옹관편이 확인 되었는데, 옹관의 형식은 3종류로서 구연부가 직립된 것과 목이 길고 외반된 옹관, 목이 짧고 밑이 둥근 원저형의 소형 옹관이 있다. 옹관에 시문된 문양은 목부분에 1열의 삼각 鉤齒文이 압인되었고 그 아래로는 格子文이 打捺되었다. 색조는 연한 갈색과 회흑색계통의 연질이며, 태토는 다량의 모래가 포함되었는데 옹관의 두께는 1.5cm~2.0cm으로 두꺼운 편이다.

4)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舒川堂丁里 土沙採取場 緊急發掘調査 略報告」.

〈표 2〉 堂丁里 周溝墓제원

番號	平面形態	類 型	規 模 (cm)		出 土 遺 物		特記事項
			台狀部	周溝幅	埋葬部	周溝內	
1호	方 形	3隅切形	1,035-967	135-82		무문토기편	주거지와 중복
2호	長方形	1辺切形? 1辺1隅切形	1,890-1,680	260-160		옹관, 두형토기, 무문토기	
3호	方 形	1辺切形	1,930-1,870	300-90		옹관, 두형토기, 무문토기	주거지와 중복
4호	方 形	2隅切形	1,060-500	150-60			
5호	方 形	3隅切形	1,200-1,100	150-100		무문토기편	
6호	方 形	2隅切形	2,360-2,250	335-75		옹관, 두형토기, 무문토기	
7호	方 形	3隅切形	1,417-1,210	160-75			
8호	方 形	3隅切形	1,450-1,290	210-200		광구단경호 무문토기	
9호	長方形	1辺切形	1,200-1,180	200-80		무문토기편	
10호	方 形	1隅切形	1,170-1,000	225-85		무문토기편	
11호	長方形	2隅切形	1,000-770	160-50		옹관, 무문토기편	합구식옹관
12호	長方形	1辺切形	960-790	200-40		무문토기편	
13호	?	?		350		무문토기편	
14호	方 形	2隅切形	1,500-1,050	245-110		무문토기편	주거지와 중복
15호	長方形	1辺切形	1,780-1,620	270-150		옹관, 무문토기편	주거지와 중복
16호	方 形	3隅切形	836-750	180-47		무문토기편	
17호	?	?	330(한변)	70-50	토광묘		
18호	長方形	1辺切形	1,430-1,360	270-120		옹관, 무문토기편	
19호	長方形	1辺切形	1,940-1,670	255-150		무문토기편	
20호	長方形	1辺切形?	1,050(한변)	155-95		무문토기편	
21호	方 形	3隅切形	900-600	175-65			회곽묘와 중복
22호	長方形	2隅切形	1,160-940	225-60			회곽묘와 중복
23호	方 形	3隅切形	1,350-1,010	175-30			주거지와 중복



<도면 2> 서천 당정리 유구 배치도



3) 益山 永登洞 遺蹟⁵⁾

益山 永登洞 遺蹟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표조사 결과 석기류와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예견되어 일부 공사를 중단토록 조치하고 익산시의 예산 협조를 얻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이 유적의 입지는 익산시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발전의 현상은 낮은 구릉과 저습지로 이루어져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연 마을의 형성전에는 잡목과 송림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상당량의 削土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은 3개의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유구의 분포와 성격 그리고 연대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3기와 주구묘 4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평면형태에서 方形住居址 4기, 圓形住居址 19기로 구분된다.

주구묘는 제 1지구 구릉의 대지상 동쪽에 1호가 위치하고 1호 주구묘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3기는 서로 근접된 상태로 모두 4기가 발견되었으며, 제 2지구에서 5층의 주구묘가 조사되었다. 이 주구묘들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같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의 일부는 층서적으로 겹치고 있기도 하다.

1) 1호 주구묘

1호 주구묘는 제 1지구에서 가장 높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에 민묘가 자리잡고 있어 다른 경작지에 비해 파괴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시굴 당시에는 Y.D1-14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環狀형 유구가 노출되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확장 노출결과 주구묘임이 밝혀졌다.

평면형태는 거의 방형에 가까우지만 네 모서리에서는 각을 죽였고 주구의 단면은 U자형으로 바닥이 둥글게 이루어져 있다. 주구의 상부 폭은 150-300cm, 깊이는 10-50cm로서 폭과 깊이가 일정치 않은데 切開部쪽 주구의 남편에는 점토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주구는 흑갈색 부식토가 채워져 매몰된 상태였고 부식토 제거시에 약간의 甕片과 灰青色硬質의 打捺文土器片이 발견되었다.

남서쪽에 위치한 辺의 중간부분에는 주구가 굴착되지 않아 출입구(육교)시설처럼 보이는 절개부분의 폭은 350cm이 된다. 한편 주구내부의 규모는 남북 10.5m, 동서 12m 정도로서 분구가 축조되었다면 이 규모가 분구의 底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동쪽

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6. 「益山 永登洞 文化遺蹟發掘調查 略報告」.

모서리부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원형주거지가 폐기되고 난 후에 주구묘가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토광묘로 길이 400cm, 폭 100cm의 細長方形이며 주구의 중앙부분에 굴착되었는데 장축방향은 절개부쪽을 향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토광의 남서 끝부분에서 鐵斧 1점과 중간부분에서 파손된 鐵刀子 1점이 발견되었고, 주구내에서 대형 옹관편과 정교하게 타날된 灰青色硬質土器片 약간이 발견되었다.

2) 2호 주구묘

1호 주구묘에서 북서쪽으로 35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의 낮은 곳에는 토사가 유실되어 일부는 주구의 바닥이 현 지표면과 높이가 같아 주구의 윤곽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다. 1호 주구묘와는 달리 절개부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주구내부의 규모는 남북 9m 정도, 동서 10.5m 정도로서 1호보다 장방형에 가깝다. 주구의 폭은 서쪽부분이 260cm로서 가장 넓고 좁은 곳은 120cm가 되며, 깊이는 20-25cm이고 단면을 U자형으로 남서쪽 모서리의 주구는 돌출되어 있다. 주구내부는 1호와 같이 흑색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고, 부식토 제거 과정에서 고배(豆)편과 함께 格子文과 繩文이 打捺된 赤褐色軟質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3) 3호 주구묘

2호 주구묘에서 불과 서쪽으로 2-3m 떨어져 인접해 있으며, 평면상에서 보면 주구의 윤곽이 잘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주구의 형태는 방형이라기 보다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切開部는 폭 320cm으로 동쪽에서 약간 남으로 치우치게 두고 있고 주구의 내부가 외부보다 약간 도드라져 높게 보인다. 주구 내부의 규모는 동서 840cm, 남북 750cm 정도가 되고 있다.

주구의 폭은 220-250cm으로 제법 균일하게 조성되어 있고 깊이는 30-40cm정도인데 내부는 역시 흑색 부식토로 충전되어 있다. 한편 남편의 주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방형주거지가 폐기된 후에 주구묘가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북모서리에 해당하는 주구에서는 대형옹관편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복원결과 2개체분으로 목이 V자형으로 벌어지는 長頸이며 어깨 이하에는 格子文이 打捺되었다.

4) 4호 주구묘

4기의 주구묘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3호에서 4-5m정도 떨어져 있고 이 주구묘의 북쪽 부분은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이미 반 정도가 절개된 상태였다.

주구 폭은 140-160cm이며 깊이는 20-30cm 규모로 시설되었고 단면은 다른 주구묘와 같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切開部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 폭은 280cm 정도가 된다.

5) 5호 주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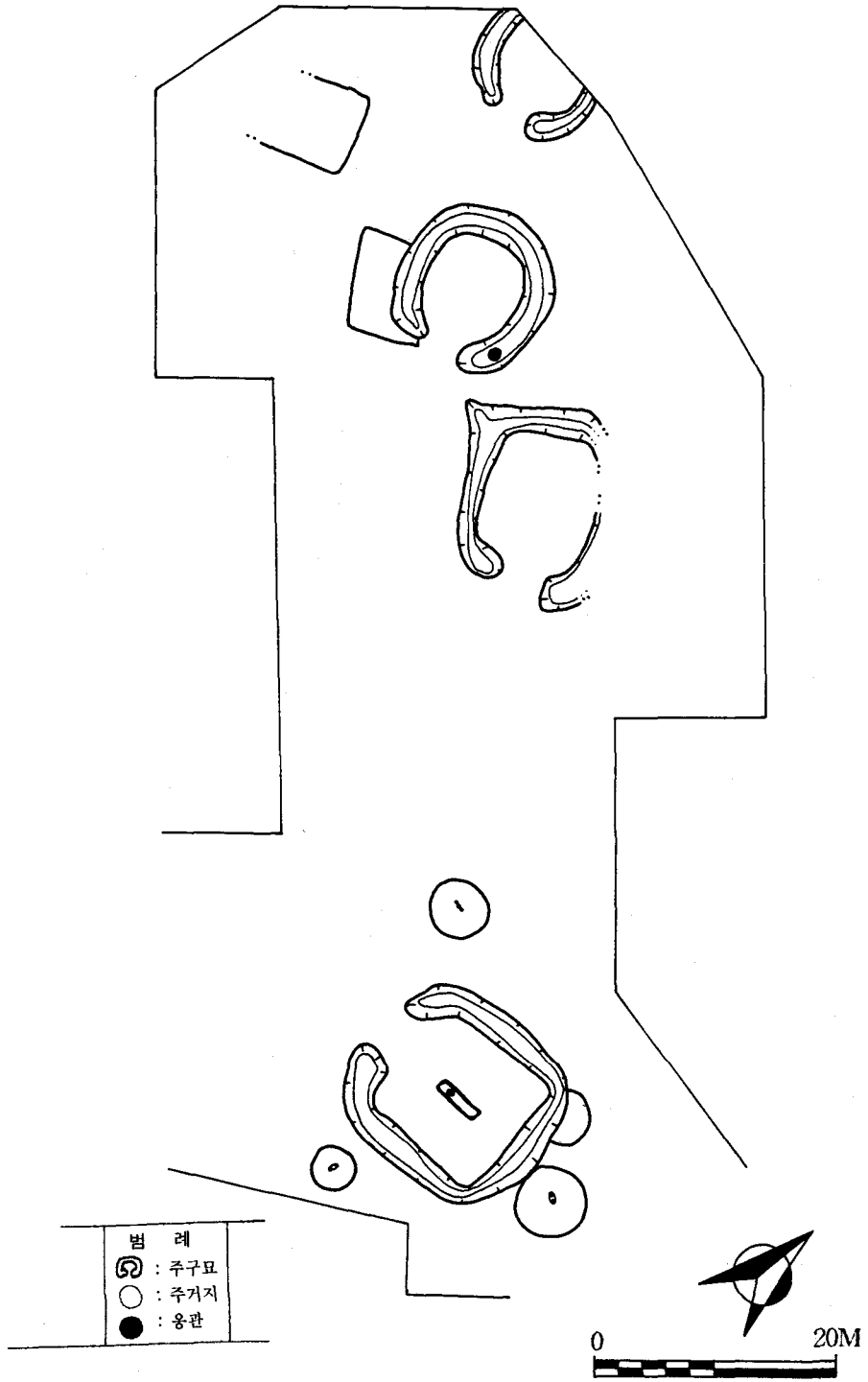
앞의 4기 주구묘에서 북으로 300여m 떨어져 있는 제 2지구의 낮은 구릉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북동쪽으로 넓게 평야가 펼쳐져 있어 조망조건이 좋은 편이다.

平面形態는 1지구의 4기의 주구묘와 달리 長橢圓形을 하고 있고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를 감싸고 주구가 조성되어 있다. 切開部는 동쪽에 시설되었고, 서쪽부분은 주구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주구가 굴착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削平에 의해 주구가 유실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대체로 주구가 잘 남아 있는 남쪽에서는 5층의 주구가 확인되었고 북동쪽에서는 4층의 주구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원래는 5층의 주구를 돌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구내부의 규모는 가장 안쪽의 것로부터 37.2m, 45.7m, 54.7m, 70.1m이며 가장 바깥쪽의 주구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주구의 폭은 50-180cm 정도이며, 가장 안쪽의 주구에서만 5-6개체분의 大形甕棺片과 打捺文土器片이 많은 잡석과 함께 발견되었고, 이외의 주구에서는 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永登洞 周溝墓제원

番號	平面形態	類型	規模 (cm)		出土遺物		特記事項
			台狀部	周溝幅	埋葬部	周溝內	
1호	方形	一邊切形	1,210-1,070	300-250	(도광 : 110×400) 철부, 도자	옹관편, 타날문토기	주거지와 중복
2호	方形	一邊切形	1,080-970	270-125		연질타날문토기	
3호	圓形	一邊切形	860-790	250-220		대형옹관편	주거지와 중복
4호	方形?	一邊切形	800	160-140			반과
5호	橢圓形	?	1. 3720 2. 4570 3. 5470 4. 7010 5. ?	80-180 80-140 50-101 80-150 70-170		대형옹관편 다수(구연, 저부, 동체부편등) 타날문단경호 직구호편 원통형토기편	5층의 주구를 돌리고 그 내부에서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가 발견됨



<도면 3> 익산 영등동 유구 배치도

3. 周溝墓의 特徵

1) 立地 및 分布

오늘날에도 죽은자의 편안한 영생을 위하고 또한 살아 남아있는 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믿음에서 묘의 選地에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살필수 있다. 고대로 올라 갈수록 분묘의 입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오랜동안 내려온 전통과 내재된 신앙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했으리라는 전제에서 볼때, 묘지의 선택부터 시작되는 墓制와 葬制의 인 전통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분묘들이 지니는 전통성과 보수성 때문에 분묘의 축조상의 구조 뿐만아니라 분묘의 입지에서도 地域性과 時代性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조사된 주구묘는 韓半島 中西部의 해안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분포 양상은 모두 群集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관창리에서는 99기, 당정리에서 23기가 일정지역에 각각 주구의 중복없이 분포되어 있으며, 영등동 1지구에서 조사된 4기도 인접하여 축조되어 있었는데, 영등동의 경우는 주변이 이미 공사로 인한 探土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주구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창리 유적의 일대는 동쪽, 남쪽, 북쪽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에서 뺀내린 구릉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곡부로 이루어져 있다. 곡부는 서쪽으로 약 1Km정도 길게 이어지면서 만입된 서해와 만나고 있어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구묘가 자리하고 있는 지점은 B지구로서 여러 支丘陵 가운데 가장 길게 뻗은 구릉으로 또 하나의 작은 구릉을 동반하고 있다. 유적은 해발 35m지점에서부터 완만하게 이어져내린 구릉의 중앙부와 兩斜面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A.F지구 사이의 계곡에는 계단식의 논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주구묘와 같은 지역에 100여기에 달하는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말각(장)방형을 포함한 방형계통의 주거지가 25기이며 나머지는 원형평면의 주거지로서 원형주거지가 숫적으로 월등히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주거지와 중복되는 주구묘의 경우 모두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주구묘가 축조된 것으로 두 유구 사이에는 시기차를 보이고 있다.⁶⁾

당정리 유적은 낮은 구릉성 평탄면에 위치하며 동편은 마을이 형성되었고 서편은 밭과 야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유적에서 서쪽으로 1Km정도에는 서해바다와 맞닿고 있다. 주구묘는 B.M을 중심으로 중앙부와 남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구묘와 더불어 16기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중복되어 발견되었다. 이들 주거지는 平面圓形이 11기 長方

6) 高麗大學校 博物館, 앞의 略報告書.

形 4기, 그리고 方形 1기로 구분된다. 주구묘와 주거지의 유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모두 주거지가 폐기된후 주구묘가 축조되고 있어 상호간의 시기차를 알 수있다.⁷⁾

영등동 주구묘 입지의 개발전의 현상은 낮은 구릉과 저습지로 이루어져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연 마을의 형성전에는 잡목과 송림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상당량의 삭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대는 표고 15-20m의 낮은 구릉이 군데군데 펼쳐져 고대인들의 거처로 알맞은 곳으로 생각된다. 주구묘는 이러한 구릉의 정상부 臺地上에 위치하는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조망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 1지구의 구릉의 대지상에 동서로 어느정도 열을 지어 4기가 발견되었는데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같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구의 일부는 層序的으로 겹치고 있기도 하다.⁸⁾ 앞에서 각 유적의 입지와 분포양상을 예시한 바를 통해서 주구묘의 입지와 분포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면을 추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첫째, 이들 주구묘들은 모두 표고 10-30여m의 낮은 구릉상 대지의 중앙부와 사면에 주구묘를 조영한다는 공통적인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방형주구묘 입지의 경우는 自然堤防上, 臺地上, 低地上, 山丘上, 丘陵上,로 나뉘며 弥生時代에는 저지상에 조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분시대에 들어서는 산의 끝자락에 조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방형주구묘는 畿内에서 타지역으로의 전파과정에서 각기 在地性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입지면에서도 지리적으로인등 규제에 기초해서 다양한 전개를 보인다는 것이다.⁹⁾

둘째, 유적의 주변에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저습지가 펼쳐져 있으며 특히 바다와 근거리인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서 바다로 나갈수 있는 길목에 위치한다.¹⁰⁾

이러한 두가지의 입지조건은 大洞江流域의 台城里, 漢江流域의 可樂洞, 石村洞古墳의 입지와 유사하고, 특히 영산강유역의 웅관고분의 공통적인 입지가 ① 평야지대의 구릉이라는 점, ② 네 방면중 최소한 두방면이 하천이 둘러 쌓이는 곳으로 물에서 가까운거리(배가 닿을 수 있는 장소)에 있다는 점, ③ 本流보다는 支流域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¹¹⁾에서 두 묘제가 밀접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셋째, 주구묘의 조성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각각의 주구묘의 중복

7)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앞의 略報告書.

8) 崔完奎, 앞의 發表要旨.

9) 山岸良二, 1982. 「方形周溝墓」 『考古學ライブラリ』 (ニューサイエンス社) 8.

10) 永登洞은 현재 內陸으로 들어온 지역이지만 村老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곳은 배가 드나들었던 곳으로 전한다. 그리고 日帝時代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유적 바로 앞으로는 沼澤地가 남아 있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益山地域의 古代水路에 관한 논문으로는 金三龍, 1977. 「益山文化圈 形成要因에 對한 考察-水路交通路와 關聯하여-」 『益山文化圈研究』가 있다.

11) 姜仁求, 1984. 「榮山江下流域의 土築墓」 『三國時代墳丘墓研究』 (嶺南大出版局).

徐聲勳·成洛俊, 1986. 『영암 내동리초분골 고분』 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 11책.

없이 독립된 묘역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전체 유적의 대규모의 군집속에서 다시 소규모 단위의 군집으로 구성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家族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군집된 주구묘의 경우는 상당량이 개별의 주구묘간의 주구가 상호 중복을 이루면서 조성된 점에서 한반도의 주구묘 군집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²⁾ 특히 주구를 공유해서 연결하는 경우와 열을 지어 수기가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군을 이루는 각 주구묘간에는 시간차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가족이 시간적인 繼起로서 수세대에 걸쳐 조영한 가족묘로서, 어느 일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³⁾ 그러나 한반도 발견의 주구묘는 집단적으로 群在하지만 주구가 공유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고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창리나 당정리의 군재된 형태를 잘 관찰하면 유적 전체라는 커다란 군집속에 소규모의 群集단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소규모의 군집이 가족단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면에서는 家族共同體의 집합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규모의 집단에서도 규모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집안내서 가족장적인 성격의 피장자로 추정되며, 유적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족 공동의 대규모 묘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당정리 주구묘의 분포양상에서 보면 몇기씩 근접되게 배치되어 있어 전체속에서 작은 단위로 세분된다. 곧 제 1그룹은 1, 5, 6, 7호주구묘, 제 2그룹은 2, 3, 4호주구묘, 제 3그룹은 8, 9, 10, 11, 13호주구묘, 제 4그룹은 12, 14, 15, 16, 19, 20, 21, 22, 23호주구묘로서 각각의 작은 群集單位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군집 가운데 다시 작은 그룹으로 세분해서 단위지울 수 있는 것은 1기의 주구묘를 매개로 최소한 血緣集團 단위로써 결합된 3-4그룹이 각각의 1계열로 파악할 수 있다.¹⁴⁾ 곧 당정리 주구묘 被葬者는 가족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최소 4그룹이상의 血緣集團이 모여 조성된 주구묘 군집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영동동에서는 1호주구묘에서 2, 3, 4호 주구묘가 떨어져 小群集을 이루고 있는데 2그룹 정도의 가족적인 혈연집단에 의한 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째, 세 유적 모두 청동기시대의 원형이나 방형의 주거지와 중복되어 발견되고 있는데 모두 주거지 폐기이후에 주구묘가 조성되고 있다.

관창리에서는 16기의 주구묘가 방형이나 원형의 주거와 중복되고 있고, 당정리에서는 6기

12) 田中新史, 昭和59年 6月. 「出現期古墳の理解と展望 -東國新門五號墳の調査と關聯して-」 『古代』 77호. 早稻田大學考古學會. 第10圖, 第11圖의 群構成集成圖에서 보면 상당수의 群集에서 周溝의 重複을 확인할 수 있다.

13) 水野正好, 1972. 「古墳發生の論理」 『考古學研究』 (考古學研究會) 第18卷 4號, 28.

14) 山岸良二, 앞의 책. 神奈川縣歲勝土遺跡발견의 方形周溝墓의 群集樣相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첫째, 單期間에 서로 이어서 만들어졌으며, 둘째, 여기저기 흩어져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近接되게 이어서 전개되었고 셋째, 전개에 있어서는 一定한 準據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新舊관계와 토광의 방향에서 7그룹으로 나누어 묘지형성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의 주구묘가 원형주거지와 중복되고 있으며, 영등동에서는 2기가 방형과 원형주거지와 중복되고 있는데, 層序의으로 모두 주거지의 폐기후에 주구묘가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된 유구 때문에 출토유물이 서로 교란될 가능성이 많아 편년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와같이 주거유적과 중복되는 예는 일본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鳥取縣青木遺跡과 神奈川縣 横兵市そとごう遺蹟¹⁵⁾으로 前者의 유적도면을 검토하면 주거지 폐기후에 주구묘가 조영된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주거지가 주구묘를 파괴하고 축조된 예도 발견된다. 일본의 예에서 보면 한반도의 것과는 달리 중복된 주거지와 시기를 같이 하면서 주구묘가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¹⁶⁾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들은 주거지와 명백히 시기차를 두고 주구묘가 축조된 것으로 양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3유적 모두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중복되는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조영집단과 주구묘 조영집단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平面形態

주구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주위에 구를 돌려 파고 있다는 점이다. 주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묘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도 하며, 주구에서 굴착된 흙을 퍼올려 매장주체부를 덮으므로써 보호할 수 있는 採土場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排水를 위해서 조성된 시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現世와 격리된 사후의 세계를 상징하는 경계표시로서 구획설정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나아가 採土를 통한 분구조성이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추론만 가능할 뿐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주구묘의 평면형태는 방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평면이 장방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것과 부정형에 가까운 것도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평면형태 그 자체로는 시기적인 차이나 지역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출입구라고 생각되는 陸橋(다리, Bridge)의 숫자에 의해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山岸良二의 유형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方形周溝墓의 個個의 平面形態와 群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¹⁷⁾

15) 山岸良二, 1982. 『앞 책』(주 9) 45의 圖 29참조. 그리고 弥生時代 後期後半으로 추정되는 유적인 神奈川縣 横兵市そとごう 유적에선 大形住居址 3기를 포함한 環壕集落과 규모가 다른 3기의 周溝墓가 검출되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형주거지에서 출토된 2점의 유리제 玉과 方形周溝墓의 周溝內에서 출토된 琉璃製 玉과 동질이라는 점이다.

16) 金井塚良一, 1972. 「關東地方の方形周溝墓 -方形周溝墓の社會構成史的檢討-」 『考古學研究』 第 18卷 第 4號. 考古學研究會. 43-44. 關東地方 및 그 주변의 方形周溝墓는 정확히 集落의 立地와 공통해서 분포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方形周溝墓는 부근에 동시기의 集落址가 배치되어 있고 集落과 方形周溝墓는 명확히 隔絶性이 認知되지 않고 있다.

- ① 個別平面形態 a. 네벽의 모서리가 모두 끊어진 형
 b. 네벽 모서리 가운데 일부가 끊어진 형
 c. 네벽 주위를 주구가 둘러싸고 있는 형
 d. a~c형 가운데 1辺 혹은 2辺이 없는 형

② 群別平面形態

- A. 獨立形 a1. 1유적에 1기가 존재하는형
 b2. 한 유적에 2~3기가 존재하는형
 B. 群在形 a1. 2~3기, 4~5기씩 주구를 연결 공유하면서 군재하는 형
 b2. 주구가 연결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군재하는 형.

개개의 평면형태에서 時期的인 특징과 경향은 그다지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지만, 東日本에서는 a형에서 군재된 경우 서서히 c형으로 이행되어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고분시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c형이 조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d형은 입지면에 의한 규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주구묘의 경우 山岸良二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독립형태의 주구묘는 발견되지 않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두 군재형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평면 형태에 있어서도 그의 유형 분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구의 굴착을 살펴보면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단면 U자형을 이루는데 그 깊이가 네 변에서 고르지 못하며, 특히 모서리 부분을 변 부분보다 낮게 굴착하고 있음을 살필수 있다. 이와같이 주구의 깊이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삭토가 심한 경우에는 그 평면형태에 있어서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곧 현재 노출된 유구를 중심으로 평면을 분류한다는 것은 원래의 평면형태와 거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천당정리에서 발견된 주구묘는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¹⁸⁾

- 제 I 형식 : 주구의 네 모서리 가운데 한 모서리를 제외하고 세 모서리가 끊어진 형식
 (1, 5, 7, 8, 16, 21, 23호)
 제 2형식 : 주구의 네변 가운데 한변의 중앙이 출입시설처럼 끊어진 형식.
 (2, 3, 9, 10, 12, 15, 18, 19호)
 제 3형식 : 주구의 네변 가운데 좌우의 대칭되는 두모서리가 끊어진 형식.
 (4, 6, 11, 14, 22호)

17) 山岸良二, 1982. 『앞 책』 (주 9) 52-55.

18)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舒川堂丁里 土砂採取場 緊急發掘調査 略報告」.

이러한 세 형식에 서천 당정리의 유구는 다 포함되고 있지만 관창리의 주구묘에서는 이보다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어 주구묘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이미 분류된 유형제시를 참고하여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지형상 파괴가 심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되는 주구묘의 양상이 개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군집을 이루고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평면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주구묘의 辺이나 隅의 끊어진 부분을 陸橋(Bridge)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機能上(Funtional)의 명칭인데 단지 추정되는 기능일 뿐 실제 출입을 위한 다리의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 간다. 1변절형의 경우는 육교라고 볼 수있을지 모르지만 단절된 곳이 여러 개인 경우는 좀 곤란한 느낌을 가진다. 그래서 필자는 記述上(Discriptional)의 명칭으로 단순히 切開部(끊어진 부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여겨진다.

I 유형(隅切形) : 모서리에 주구를 굴착하지 않고 절개부가 있는 유형.

- a. 네모서리 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 (四隅切形)
- b. 세모서리 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三隅切形)
- c. 두모서리 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二隅切形)
- d. 한모서리 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一隅切形)

II 유형(隅辺切形) : 모서리와 변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

- a. 한 모서리와 한 변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一隅一辺切形)
- b. 두 모서리와 한 변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二隅一辺切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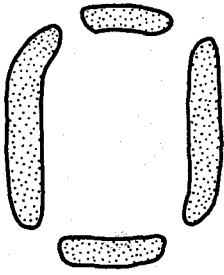
III 유형(辺切形) : 변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

- a. 한 변의 중간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一辺切形)
- b. 두 변의 중간부분에 절개부가 있는 유형(二辺切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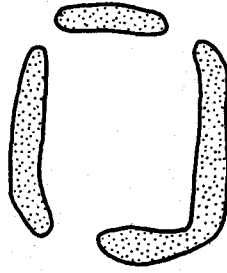
IV 유형(閉鎖形) : 모서리나 변에 절개부가 없고 주구로 둘러싸고 있는 유형.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유적에 분포하고 있는 주구묘 평면의 내용을 보면 유적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먼저 관창리에서는 네유형 평면형태의 주구묘가 모두 발견되고 있고, 당정리에서는隅切形(I-b)(I-c)(I-d), 그리고 辺切形(III-a) 등 네유형이 발견되고 있는데 비해 영등동에서는 一辺切形(III-a)만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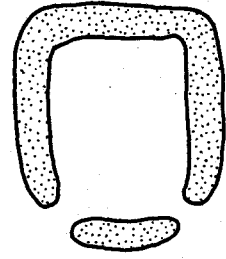
이들 각각 유형간에 시기적인 선후관계는 편년기준이 될 수 있는 출토유물이 없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주구의 기능상으로 주구의 굴착이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한 土沙의 採土로 비롯되었다면 隅切形중에서도 四隅切形(I-a)이 먼저 조성되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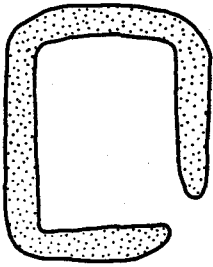
四隅切形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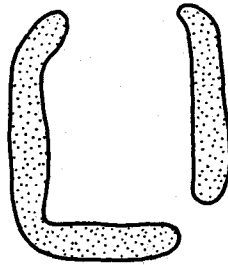
三隅切形 (I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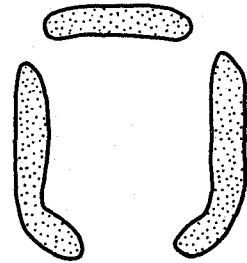
二隅切形 (I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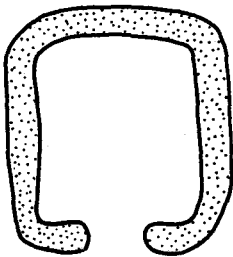
一隅切形 (I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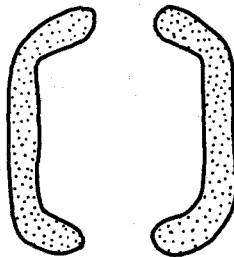
一隅一边切形 (I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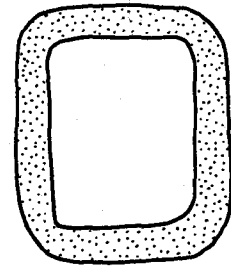
二隅一边切形 (II b)



一边切形 (III a)



二边切形 (III b)



閉鎖形 (IV)

<도면 4> 주구묘의 평면 형태별 모식도

가능성이 있는데 辺에서의 거리가 모서리에서보다 중앙에 가깝기 때문에 변이 채토에서 경제적이었을 것이며, 평면이 방형인 경우 모서리 부분이 변보다 깊이가 낮게 굴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개의 평면형태가 시기적인 특징이나 경향이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東日本지역에서는 四隅切形이 선행 유형이고 서서히 閉鎖形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一辺切形の 경우는 弥生時代の 終末期에 조성되며 고분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²⁰⁾ 한편 각각 유형별 규모면에서 보면 대체로 辺切形이 다른 유형보다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형간의 규모차이와 지역적인 분포상의 차이는 시기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창리보다는 당정리에서 유형이 단순화와 대형화되는 현상과 특히 영등동에서는 1변절형만 발견되고 있어 이들 각각의 유적사이에 시기폭이나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墳丘

古墳의 墳丘란 일차적으로는 고분의 매장주체시설에 대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외적인 파괴요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능적 역할 외에 외형을 크게 축조함으로써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서 三國初期에는 이러한 高大墳丘의 등장이 고대국가의 성립이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기도 하며, 혹은 분구 주위에 여러 형태의 주구를 돌려 파 고분 축조인들의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면도 고려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 분구의 규모는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시기에 따라 분구의 규모나 형태가 다양하게 축조변화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주구묘의 분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台狀部에 위치한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해 주구에서 흙을 퍼 올려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높지않은 분구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일본에서도 당초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방형으로 구를 돌려 매장주체부를 구획하는 것으로서 평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1971년 大阪에서 瓜生堂遺蹟의 제 2호방형주구묘에서 분구가 발견됨에 따라 방형주구묘의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입면적인 면도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곧 방형주구묘의 발견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에 주구묘에도 분구시설이 있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한반도에서도 발견 가능성은

19) 山岸良二, 1982. 『앞 책』 (주 9) 52-53.

20) 石野博信, 1987. 「古墳の出現」 『古墳發生前後の古代日本-弥生から古墳へ-』 (大和書房) 212-213.

21) 崔完奎, 앞의 發表要旨.

22) 一瀬和夫, 1985. 「方形周溝墓・方形台狀墓そして古墳 -方形周溝墓の墳丘立面を中心として-」 『末永先生米壽記念獻呈論文集』 175.

충분히 예견된다고 여겨진다.

방형주구묘의 분구의 유무에 대해서는 주구는 채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묘역을 구획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구내에서 파낸 흙으로서 방형대상에 낮은 봉토를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분구의 높이는 약 50cm에서 1m정도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²³⁾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방형주구묘를 고총고분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경로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봉토의 존재가 논의 되었지만 그후 발견 유적의 급격한 증가예에도 불구하고 봉토가 존재하는 예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그러나 일본에서 미생시대중기이후로 추정되는 大阪市 瓜生堂유적은 낮은 입지에서 분명히 0.3-1.4m의 성토를 한예가 15기 이상 검출되었다. 그중에서도 2호 방형주구묘는 남북 16m, 동서 11.5m의 규모로서 분구의 높이는 1.4m이며, 주구의 폭은 2.0m, 주구의 깊이는 0.4m가 된다. 특히 方台部에서는 木棺 6기, 甕 5기, 壺棺 1기, 그리고 土壙 6기가 매장주체부로서 발견되었다.²⁵⁾ 한편 關東地方에서는 60개유적 164예의 방형주구묘에서 명확히 봉토가 확인된 것은 8예에 불과하다.²⁶⁾ 이와같이 방형주구묘의 발견예가 많은 일본의 경우에도 분구의 확인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이던간에 유실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周溝墓의 墳丘의 有無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언급할 매장주체부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조사된 주구묘 자료수에 비해 일본의 예와 마찬가지로 매장부의 발견예가 극히 제한적이며 매장시설부로 생각되는 것 가운데 토광묘나 옹관묘등이 분구중에 매장부시설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분구의 유실과 더불어 매장주체부도 유실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구의 형태는 주구묘의 평면형태에 따라서 대부분 방형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이며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古代墳墓에서 墳丘가 象徴적으로 標識的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구묘에서는 분묘의 표식적인 면에서는 분구의 높이보다는 오히려 주구로서 구획되는 평면적 관점에서 표식적 기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3) 大塚初重, 1971. 「土壙墓研究の課題 -とくに弥生時代と古墳時代について-」 『日本歴史』 281.

24) 山岸良二, 1982. 『앞 책』 (주 9) 55-56, 北陸地方, 中國地方, 關東地方의 一部에서 山丘上, 丘陵上의 立地에 自然地形 등을 이용한 封土的인 구조를 가진 周溝墓의 몇예가 보고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墳丘와 관련하여 周溝墓, 墳丘墓, 台狀墓 등에 대한 속성과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한 논문으로는 茂木雅博, 1984. 「方形周溝墓と墳丘墓」 『季刊考古學』 第9號. -特集 墳墓の形態とその思想-(雄山閣)이 있다.

25) 瓜生堂遺跡, 1971. 「中央南幹線内西岩田瓜生堂遺跡調査會」.

26) 金井塚良一, 1972. 「關東地方の方形周溝墓 -方形周溝墓の社會構成史的檢討-」 『考古學研究』 (考古學研究會) 第18卷 第4號.

4) 埋葬施設

주구묘의 매장부시설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유적수에 비해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구묘의 매장주체부 시설로는 토광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외의 시설로서는 木棺, 石棺, 土器棺 등도 조사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토기관(甕棺, 壺棺)은 부차적인 매장시설로 보이는데 범일본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대부분 方台部 肩部나 溝内部처럼 매장주체에 부설되는 형태이다.²⁷⁾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주구묘의 매장부 시설로는 土壙墓, 石棺墓, 甕棺墓 등이 있는데, 土壙墓나 石棺墓는 台狀部에서 발견되는 것에 반해서 甕棺은 주로 周溝內에서 발견되고 있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창리에서 조사된 99기의 주구묘 가운데 매장부 시설이 잔존해 있는 것은 겨우 3예에 불과할 정도로 매장부 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발견된 매장부 시설은 토광묘와 석관묘 2종류로 구분된다. 404호는 台狀部에 토광을 매장시설로 하며 그 내부에서 철촉과 철도자 그리고 파손된 형태의 瓦質土器 1점이 출토되었고, 남쪽의 주구내에서는 대형 와질 옹편이 출토되었다. 423호의 매장시설은 석관묘로 추정되며 철모 5점이 출토되었다. 437호도 석관묘를 매장부로 두고 있는데 粘土帶土器, 黑陶長頸壺 및 수십점의 대롱옥과 倣製鏡이 출토되었다.²⁸⁾

당정리에서 발견된 23기의 주구묘에서는 台狀部에 설치된 매장부 시설은 17호에서 토광의 흔적만이 발견되었을 뿐 뚜렷한 매장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2, 3, 6, 8, 11, 15, 18호의 주구내에서 중대형급의 옹편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옹편의 형식은 모두 3종류로 구연부가 직립된 것과 목이 길고 외반된 옹편, 목이 짧고 밑이 둥근 圓底形의 小形甕棺이 있다.²⁹⁾

영등동에서 조사된 5기의 주구묘 가운데 1호 주구묘의 台狀部 중앙에서 매장부 시설로 토광묘가 발견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400cm, 폭 100cm의 세장방형이었고, 1, 3호 주구묘의 주구내에서는 대형옹편이 발견되었다. 3호 주구묘에서 발견된 옹편은 변의 절개부쪽에서 대형옹편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고 복원 결과 2개체분임이 밝혀져 주구내에 합구식으로 안치된 옹편이었거나 台狀部에 옹편을 매장주체로 설치되었던 것이 분구의 삭평과 더불어 주구내에 퇴적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고창 중월리에서 출토된 합구식옹편의 경우 발굴당시에는 주구에 주목하지 못하다가 최근 주구묘의 조사를 계기로 발굴자의 증언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구내에 안치되

27) 山岸良二, 1982. 『앞 책』(주 9) 埋葬主體施設은 지역에 따라 각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木棺은 大阪 중심의 西日本地域에, 石棺은 岡山縣에서 서부지역으로 집중되어 검출되고 있다.

28) 高麗大學校博物館, 앞의 略報告書. 寬倉里 周溝墓 가운데 437호의 매장시설인 石棺墓에서 출토된 유물을 편년기준으로 B.C4세기라는 연대가 설정된 듯한데 이는 주변의 靑銅器時代의 주거지들이 집단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중복되는 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略報告書.

있던 옹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⁰⁾

당정리 주구묘에서는 주구내에서 중,대형의 옹관이 발견된 예는 2, 3, 6, 7, 8, 11, 15, 18호 등 전체 23기 가운데 8기인데, 8호와 11호에서는 합구식 옹관이 발견되어 매장주체시설은 台狀部 뿐만 아니라 주구내에도 매장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堂丁里의 예도 中月里 甕棺³¹⁾과 영산강유역의 靈岩 沃野里 14호분,³²⁾ 靈岩 新燕里 9호분³³⁾ 咸平 萬家村 7호분 북쪽주구³⁴⁾에서 보면 주구내에서 일부퇴적이 이루어진후에 다시 퇴적토를 파고 옹관을 안치하고 있는 점은 주구내에도 매장시설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영등동 2차조사에서 발견된 5종의 주구묘에서는 가장 내부쪽에 해당하는 주구내에서 다량의 대형옹관편이 수습되었는데, 정리과정에서 최소한 5개체분이상의 옹관파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1주구내에 1개의 옹관을 매장시설로하는 것이 아니라 1주구내에 다장을 행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이와같이 주구묘에 조성된 매장주체시설의 위치는 台狀部和 周溝內에 있다는 점을 살필 수있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土壙墓, 石棺墓, 甕棺墓로 나눌수 있는데 그 중 주구내에서 발견되는 파괴된 옹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장례의식과 관계된 유물이란 견해도 있지만 台狀部에 안치된 옹관이 자연적, 인위적인 분구의 파괴시에 밀려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주구내에도 매장시설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주구내에서 옹관이 매장시설로 발견되는 예는 영암 옥야리, 함평 만가촌고분 등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에서도 보이고 있어 매장위치의 공통점과 함께 매장시설이 옹관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에 강한 친연적 관련성을 짐작케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의 대형분에서는 분구중에 옹관과 토광을 매장시설로 두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주구묘의 매장시설의 위치도 분구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장시설의 종류와 더불어 매장시설의 위치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어 양자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있다.

5) 出土遺物

앞서 살펴 보았듯이 매장부 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문 까닭에 주구묘에서 발견되는 유물양상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한편 주구묘와 주거지들이 중복되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두 유구간의 유물이 교란되어 수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어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은

30)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4. 『高敞 中月里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

報告者는 周溝의 해석을 排水施設 혹은 戰時의 塹壕施設로 추정하고 있다.

3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앞의 報告書.

32) 崔成洛, 趙根宇, 1991. 『靈岩 沃野里古墳』 木浦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第 20冊.

33) 國立光州博物館, 1993. 『靈岩 新燕里 9號墳』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 26책, 84.

34) 林永珍, 1996. 『榮山江流域의 異形墳丘』 (湖南考古學會 第 4回 學術大會發表要旨).

상태에서는 어떠한 유물이 정확히 부장된 유물인지 구분이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부장유물의 제한적인 현상으로 주구묘의 연대를 살피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副葬遺物の 발견되는 양상을 보면, 寬倉里的의 경우 조사된 99기 가운데 9기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매장부시설에서 발견된 예는 3예이며, 6예는 주구내에서 발견되었다.³⁵⁾

堂丁里는 조사된 23기의 주구묘 가운데 17기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은 매장시설 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주구내에서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의 내용에서 보면 옹관과 無文土器가 출토된 것은 6예이며, 무문토기편만이 출토된 것은 11예에 해당한다. 당정리에 서 발견된 옹관의 제작성은 영등동의 옹관과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³⁶⁾

영등동 주구묘에서 조사된 5기중 매장주체부에서 유물이 발견된 예는 영등동 1호 주구묘로 台狀部에 설치된 토광묘에서 鍛造鐵斧 1점과 파손된 刀子 1점이 출토되었고, 주구내에서 옹관편과 정교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3호에서는 切開部 근처에서 대형 옹관편이 집중적으로 수습되었다. 2차조사에서 발견된 5호주구묘의 경우는 다른 유적과 달리 5중의 주구를 굴착하고 있는데 유물은 가장 안쪽의 周溝에서 5-6개체분의 大形甕棺片과 打捺文土器片, 直口壺片, 圓筒形土器片 등 많은 양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와같이 주구묘에서 유물출토 양상은 매장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구내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다.³⁷⁾ 한편 매장부 시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구내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예가 있는데 대부분 유물의 종류는 옹관이 주를 이루고 타날문토기나 연질토기등도 발견되고 있다. 주구내에서 발견되는 유물 가운데 매장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옹관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주구묘의 성격이 埋葬과 관련된 유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적 유물이기도 하다.³⁸⁾

현재까지 발견된 주구묘의 유형에 따라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출토유물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 중에서도 출토량이 많은 옹관이 편년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영등동 주구묘의 1호, 3호, 5호에서 옹관편이 수습되었는데, 3호 주구묘의 주구내에서 발견된 옹관편은 목부분과 구연부의 두께가 2cm이상의 대형으로 목은 어깨에서 V자형으로 길게 벌어져 있고 구연은 거의 직각으로 외반시키고 있다. 어깨 부분에는 鋸齒文이 돌려지고 그아래부터 몸체에는 격자문이 촘촘히 시문되어있다. 5호 주구묘에서 발견된 옹관편들은 출토양에 비해서 완전히 복원가능한 것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수

35) 高麗大學校 博物館, 앞의 略報告書

36)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앞의 略報告書. 周溝墓가 靑銅器時代의 住居址와 重複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大形甕棺과 無文土器가 共伴되는 등 攪亂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37) 茂木雅博, 1984. 『앞 책』 (주 24) 30-31. 表1에서 보면 대부분의 유물이 埋葬施設보다 周溝內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日本의 弥生時代 周溝墓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山岸良二, 1982. 『앞 책』 (주 9) 59-63. 方形周溝墓에서 발견된 유물을 發見場所, 遺物種類, 發見狀況에 의해서 副葬品, 供獻品, 其他의 세종류로 대별하고 있는데 周溝內나 方台肩部에서 發見된 유물은 供獻品으로 區分하고 있다.

습된 파편에서 어느정도 옹관의 기형적인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옹관의 口緣 및 어깨부분은 3호에서 출토된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2개체분의 甕棺 底部가 발견되었는데 무문 토기전통의 축약된 형태로서 다른 유적의 옹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형태의 옹관과 비교되는 자료로는 高敞地域의 松龍里³⁹⁾나 中月里의 옹관⁴⁰⁾과 비슷한 형태로 이들 연대를 A.D 2-3세기로 추정하고 있어⁴¹⁾ 영등동의 주구묘에서 수습된 옹관도 이들 옹관과 큰 시기차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으로 오히려 이른시기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榮山江流域에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시기로 편년되는 靈岩 仙鳳里 계양옹관⁴²⁾과 咸平 萬家村古墳의 7호분 周溝堆積土에서 발견된 大形合口甕棺⁴³⁾ 비교할 수 있다.

결국 주구묘에서 발견된 옹관들은 영산강유역의 U자형 專用甕棺보다는 이른시기로서 북으로부터 서해안을 통한 대형옹관의 전통이 파급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주구묘에 대한 자료의 증가가 선행과제이지만 영산강유역 옹관묘의 先行墓制로서 주구묘에 대한 제특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周溝墓의 諸問題

1) 名稱問題

먼저 일본의 경우 1964년도 大場磐雄에 의해 東京都八王子市宇津木지구에서 최초로 주구묘가 발견되었는데, 당초 「方形周溝特殊遺構」라는 가칭을 사용하였고 토광의 내외에서 유리 제옥과 바닥에 구멍이 뚫린토기(底部穿孔土器)가 발견됨에 따라 분묘라고 판단하여 그해 일본 고고학협회의 추계대회에서 「方形周溝墓」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된 것이다.⁴⁴⁾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한 성토가 있는 주구묘가 발견됨에 따라 고분발생과 관련시켜 溝가 둘러진 것보다도 오히려 성토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래부터 불리어진 방형주구묘를 方形盛土墓, 低墳丘墓 혹은 분구묘라고 부르자는 주장들이 있어 명칭상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적절한 호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39) 全榮來, 1975. 「高敞 松龍里 甕棺墓」 『全北遺蹟調査報告』 (全羅北道 博物館) 第5輯.

40)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앞의 報告書

41) 全榮來, 앞의 報告書에서 A.D. 2-3세기 경으로, 安承周는 「百濟 甕棺墓에 관한 研究」 『百濟文化』 15집에서 A.D. 2세기경으로, 安春培는 「韓國 甕棺墓에 관한 研究」 『釜山女大論文輯』 18집에서 A.D. 3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42) 徐聲勳·成洛俊, 1986. 「영암 내동리초분골고분」 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 11책, 98-110.

43) 林永珍, 1996. 「咸平 禮德里 萬家村古墳과 榮山江流域 古墳의 周溝」 (第39回 歷史學大會 發表要旨) 357.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빠른시기의 유형옹관으로 A.D 2세기로 상정하고 있다.

44) 齋藤 忠, 1992. 『日本考古學用語辭典』 (學生社).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주구묘에서는 아직까지 분구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평면적으로 확인되는 주구외에는 뚜렷한 속성을 찾을수 없어 분구와 관련된 명칭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한편 天安 淸堂洞, 淸州 松節洞, 公州 下鳳里, 등에서 토광묘에 주구가 부가된 형태로 발견된 것과 保寧 寬倉里, 舒川 堂丁里, 益山 永登洞의 주구묘와 구분없이 이들 모두를 주구묘로 지칭되어 왔다.⁴⁶⁾ 그 후 이들 유적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묘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구와 묘의 형식을 나타내는 토광묘를 합성하여 주구토광묘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고,⁴⁷⁾ 분묘의 형식분류는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周溝土壙墓의 토광부분은 불합리하므로 주구가 설치된 분묘와 관창리의 분묘를 포함해서 주구묘라 통칭하고 매장주체부에 따라 周溝木棺墓와 周溝木槨墓로 구분짓자는 제안이 있었다.⁴⁸⁾ 다음에서 두 유형의 묘제를 비교하여 상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관창리, 당정리, 영등동에서는 명확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구토광묘라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두 유형의 주구를 모두 포괄하는 주구묘의 명칭에도 주저함이 생긴다. 한편 두 유형의 주구를 가진 묘제가 동일 명칭으로 사용되어질수 있는 만큼 동질성이 있느냐 하는것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태여서 청당동, 송절동, 하봉리 등의 분묘는 기존의 토광묘와 구분짓는 의미에서 주구토광묘로 부르도록하고, 관창리, 당정리, 영등동의 분묘는 평면에서 방형뿐아니라 장방형, 원형, 말각방형도 발견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구묘라 호칭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다.

2) 周溝土壙墓와 比較

周溝墓와 周溝土壙墓의 두묘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立地, 埋葬部 施設, 出土遺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立地條件에 대해서 살펴보면, 天安 淸堂洞의 경우 舌狀臺地의 능선상에 평탄면보다는 사면을 선택하여 특정한 방향보다는 지형에 따라서 장축방향을 취하고 있고, 경사면에서도 북사면보다 남사면을 선호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⁴⁹⁾

松節洞 유적의 입지는 해발 90여m의 야산 가장 높은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아랫부분으로 북향한 경사면에 해당하며 해발 59-62m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조사된 16기의 고분은 모두 淸堂洞과 같이 자북방향에 의한 장축을 두는 것이 아

45) 金關 恕·佐原 眞, 1987. 『墓地』 『弥生文化の研究』 (雄山閣出版株式會社) 8, 130.

46) 徐五善·李浩炯, 1995. 『下鳳里 I』 (國立公州博物館) 105. 註) 21參照.

47) 姜仁求, 1994. 『周溝土壙墓의 몇가지 問題』 『정신문화연구』 17-3, 통권56호.

48) 咸舜燮·金在鴻, 1995. 『淸堂洞 II』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제27책) 107.

49) 咸舜燮·金在弘, 앞의 報告書.

니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산경사에 직교하게 곧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⁵⁰⁾

下鳳里 유적은 해발 115m의 주산에서 동남방향인 장기천방향으로 뺨은 舌狀稜線의 말단부 능선상에 위치하며, 분묘는 표고 10m내외의 낮은 구릉에 입지하며, 유적의 주변에는 작은 하천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구토광묘와 더불어 甕棺墓 4기, 溝狀遺構1기, 橢圓形豎穴遺構 5기가 조사되었으며, 분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의 방향과 나란하여 경사면과는 직교하게 묘광을 안치하고 있다.⁵¹⁾ 이와같이 주구토광묘의 입지는 가지능선의 낮은 구릉성 야산에 능선보다는 동남쪽의 경사면을 택하여 墓壙을 축조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철저히 지형성을 고려하여 경사면에 直交하도록 방향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분묘도 아울러 발견되고 있는 점은 오랜기간동안 분묘의 입지로서 선호된 지역임을 알 수 있기도 한다. 곧 주구토광묘들은 구릉의 경사면에 매장부 시설인 토광묘의 장축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구묘의 경우 구릉의 정상 台地狀에 분포하고 있고 절개부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주구토광묘의 장축방향은 지형에 따른 축조의도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토착묘제로 인식되는 수혈식, 횡구식석곽분과 같은 현상이기도 하다.⁵²⁾

공주 하봉리에서는 부장 유물을 낮은 쪽에서 올려 보았을 때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는 정형성이 보이는데⁵³⁾ 역시 豎穴式, 橫口式石槨墳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부장위치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토토기를 보면 주구토광묘인 청당동이나 송절동에서는 圓底短頸壺와 深鉢形土器 1점이 세트를 이루고 있지만 하봉리에서는 심발형토기가 발견되지 않아 지역적, 시기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주구묘에서 발견되는 토기로는 대형옹관편이 대부분이며 打捺文土器片만이 약간 수습될 뿐이다.

주구 형태는 주구토광묘의 경우 기본적으로 馬蹄形으로 경사의 위쪽에서 매장부 시설인 토광묘를 감싸고 있지만 주구묘의 경우는 切開部의 위치나 숫자에 따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주구의 기능에서 보면 주구토광묘에 부가된 주구의 위치는 산경사의 윗쪽에 굴착되어 있고 상하의 깊이에서 배수와 묘역의 경계를 위한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⁵⁴⁾ 그러나 주구묘의

50) 車勇杰·趙詳紀, 1994. 『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 '92年度 發掘調査報告』 『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研究所).

車勇杰·趙詳紀,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 -'93年度 發掘調査』 (백제문화개발연구원).

51) 徐五善·李浩炯, 앞의 報告書.

52) 崔完奎, 1995. 「全北西海岸地方 百濟古墳의 一考察-熊浦里古墳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집.

53) 徐五善·李浩炯, 앞의 報告書. 遺物의 副葬位置를 확인할 수 있는 13기 가운데 11기가 유물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4) 韓永熙·咸舜燮, 1993. 「天安 淸堂洞 第4次 發掘調査報告」 『淸堂洞』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제25책). 143. 周溝의 중복이 없는 점이 묘역을 구획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姜仁求, 앞의 논문 107-109에서는 周溝가 一面이나 二面밖에 없어 묘역 구획의 기능은 약하며 다만 排水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경우는 대부분 중앙 台狀部를 중심으로 주구가 돌려져 시설되어 있는데 주변이 경사지지 않고 평평한 관계로 배수와 관련된 시설이라기 보다 매장부 시설의 보호를 위한 분구조성의 採土와 관련되었거나 신앙적측면에서 내세와 격리된 의미의 해자적 성격으로 추정된다.

매장부 시설을 비교하면 주구토광묘들은 주구의 깊이에 비하여 매장주체부인 토광묘의 깊이가 상당히 깊게 조성되어 있다. 주구묘에서도 이러한 매장시설이 있었다면 발굴결과 당연히 매장부 시설이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구묘에서 주구는 노출되고 있지만 매장부 시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일단 영동동이나 관창리 주구묘의 매장주체부는 지상에 시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내용은 꼭 토광묘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주구내에서 발견되는 토기류가 대형옹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매장부 시설은 옹관묘일 가능성이 많아 두 묘제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와같이 두 묘제간에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욱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동일계통의 묘제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서로 다른 전개과정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주구토광묘는 백제의 토착묘제라 일컫는 수혈식석곽분으로 이행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당동의 제 3단계에 해당하는 토광목곽묘단계에서 主副葬槨이 등장하며 다음 단계에 최근 조사된 華城 馬霞里의 竪穴式石槨墳과의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곧 주구토광묘의 제 속성에서 수혈식석곽분과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다만 축조재료를 목재에서 석재로 변안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⁵⁾ 반면에 주구묘는 제속성에서 영산강유역의 대형옹관묘와 관련성을 찾을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주구묘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周溝墓의 展開樣相

주구묘를 축조한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구묘는 계속 조영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분묘로 변화 발전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좀더 자료가 축적되어야 밝혀질 문제이지만, 현재 자료로서는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구묘의 축조연대를 보면 수습된 옹관과 출토유물에서 2-3세기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발견된 지역을 감안할 때 축조집단은 馬韓勢力과 관련지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周溝墓의 立地와 分布, 埋葬施設, 周溝 등 제속성에서 天安 淸堂洞, 淸州 松節洞, 公州 下鳳里의 周溝土壙墓보다 오히려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파악하고 있다.

55) 咸舜燮·金在弘. 앞의 報告書, 157.

호암미술관 발굴단, 1996. 「96 華城 馬霞里古墳群 發掘調査 中間報告」.

이러한 점은 百濟地域에서 발견되는 竪穴式石槨墳의 源流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다음 기회에 本格的으로 다룰 예정이다.

옹관고분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지에서 보면 옹관고분의 입지는 대부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강이나 바다에서 눈에 쉽게 띄는 곳인데, 이는 축조집단의 활동이 물과 깊게 관련된데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大洞江이나 漢江流域의 고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⁵⁶⁾ 영산강유역에서 이른시기의 고분은 대체로 평지나 低平한 丘陵地帶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입지적인 면이 주구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구묘는 앞선 시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폐기된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거지 입지와 분묘조성지역의 입지가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연리 9호분⁵⁷⁾에서 원삼국시대의 주거지가 하층에서 발견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구묘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주구시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주구와 관련된 묘제로서 주목되는 분묘는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인데, 이미 조사된 옹관묘 가운데 매장부시설인 옹관을 중심으로 발굴이나 수습조사된 경우는 대부분 주구관련 시설을 간과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분구 조성과정 및 그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면 발굴방법을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분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구시설이 대부분 발견되고 있어⁵⁸⁾ 주구묘와 공통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매장부의 시설에서 보면 영산강 유역의 옹관고분은 하나의 거대한 분구내에 옹관을 비롯하여 토광묘가 매장주체로 시설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구묘의 주구내에서 甬口式으로 甕棺이 매장된 것이라든지 혹은 주구내의 대형옹관편이 台狀部에서 흘러내렸을 가능성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옹관고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구묘에서 매장시설이 토광묘인 경우는 영등동 1호와 관창리의 404호, 당정리 17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곧 매장주체부의 시설과 위치에서 두 묘제간에 공통적인 요소는 상호밀접한 집단에 의해 축조된 묘제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구묘의 분포양상을 보면 대단위의 집단에서 다시 소규모 단위를 찾을 수 있는데 영산강 유역의 옹관고분의 대형분구내에 다장으로 매장되는 양상은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가족장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어⁵⁹⁾ 주구묘의 평면적인 소규모의 혈연집단이 입체적인 분구의 조성으로 한분구내에 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입체적인 면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日本의 瓜生堂 2호분에서 나타나듯이 영산강유역의 영암 옥야리 14호분, 신연리 9호분처럼 낮은 분구를 갖춘 분묘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⁶⁰⁾

56) 姜仁求, 1984. 『앞의 책』 (주 11).

57)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報告書. 79.

58) 林永珍, 앞의 發表要旨. 359. 表 2 參照.

59)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 『百濟文化15輯』 (公州師範大學百濟文化研究所) 53-62.

60) 周溝墓에서 발견된 이른시기의 옹관형태와 유사한 高敞 松龍里나 仙鳳里 甕棺에서 墳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낮은 분구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주구묘에서 출토된 옹관은 영산강유역에서는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며, 주구묘 발견지역에서 영산강유역에 이르는 중간지역인 고창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서해안을 통한 상호간의 밀접한 문화교류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주구묘의 제특징 및 전개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살펴본 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주구묘의 발견은 日本 固有의 독자적인 묘제로 인식해 왔던 方形周溝墓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어 古代 韓日間 문화교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유적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周溝墓의 立地 및 分布에서 大洞江, 漢江, 榮山江流域의 분묘의 입지와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앞선시기의 住居址 立地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로서 層序적으로 선후가 분명하지만 두 유적간의 관계가 좀 더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구묘의 분포양상을 보면 대단위의 群集속에 소규모의 단위를 파악할 수있어 家族的 血緣集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평면형태는 앞서 분류한 바와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지만 유형별 선후관계는 현재로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구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면 四隅切形에서 一辺切形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매장시설은 토광이나 옹관이 사용되었고 台狀部 뿐만아니라 주구내에도 매장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사용된 매장부 시설은 옹관이었을 것으로 多葬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築造時期는 出土甕棺이 高敞地域이나 榮山江流域의 이른시기 大形 專用甕棺과 비교되어 대체로 A.D. 2-3세기가 중심연대가 될것이며 馬韓勢力과 관련된 묘제로 판단된다.

여섯째, 주구묘는 中部地方에서 발견된 周溝土壙墓와는 제 속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고분과 앞에서 요약한 여러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있어 주구묘는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으로 전개 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구묘들은 최근 발견된 자료들로서 아직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세부적인 면까지 파악하는데는 한계와 무리가 있다는 점을 筆者도 잘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자료의 증가를 기다리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므로 많은 叱正이 있기를 기대한다.